



**HAL**  
open science

: ( ☒ )  
Lucie Angheben

► **To cite this version:**

Lucie Angheben. : ( ☒ ). 9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Academy Of Korean Studies, Sep 2018, Seongnam, South Korea. <hal-02385504>

**HAL Id: hal-02385504**

**<https://hal.science/hal-02385504>**

Submitted on 4 Dec 201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외롭고 소외된 목소리 : 오늘날 한국문학에서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고독  
(최진영 소설 <엘리>를 중심으로)

루시 앙게벤<sup>1</sup>

서론

0. 최진영 소설 <엘리>

1. 한국사회의 기준에서 고립

1.1. 이야기의 현재 :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은 결별

1.2. 화자의 과거 : 학업, 취업과 재산 포기

2. 자발적인 고독 : 장단점

2.1. 타인 없이 힐링 고독을 찾아서

2.2 존속되는 죄책감과 고통

결론

서론 : 젊은 작가들이 만든 한국문학과 N 포세대

본 발표에서는 1981년에 태어났고, 2006년에 「실천문학」에서 등단한 최진영 작가의 소설 <엘리<sup>2</sup>> 살펴 보려 한다. 최진영 작가는 한국 '젊은 작가'군에 속한다. 한국 젊은 작가란 주로 1970년 이후 태어나서 2000~2010년대에 등단한 작가들이다<sup>3</sup>. 이 젊은 작가 세대(Attias-Donfut가 제의한 인지사회학적 의미로 «역사적으로 같은 경험을 살며 같은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동년배의 사람들의 집단<sup>4</sup>»)는 국가나 이데올로기 문제보다는 개인이나 일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성향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5</sup>. 문학을 감지하는 이 새로운 모습은 Casanova가 소개한 «문학적인 자급자족의 정복»으로 볼 수 있는데 즉 «국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문학에서 역사와 정치의 끈에서 벗어나 해방시킨 문학으로의 이행; 언어적 지배, 경제적 의존,

<sup>1</sup> 루시 앙게벤은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Aix-Marseille Université, AMU) 예술 및 문예 창작 이론과 실천학과 (번역 전공) 박사 과정, Cielam/IrAsia 연구소 수석. 한국문학 프랑스어로 번역가. [lucie.ang@gmail.com](mailto:lucie.ang@gmail.com)

<sup>2</sup> <엘리>라는 단편소설 「문학동네」 2011년 가을호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그 뒤에는 「요요 (제 13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2)」 (문학의숲, 2012.10.02)과 소설집 「팽이」 (창비, 2013.09.10)를 출간하였다.

<sup>3</sup> '젊은 작가'라는 호칭은 문학평론가들이 꾸준히 쓰게 된 것뿐만 아니라 2010년에 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 신설과 2013년에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인정을 받았다. 문학동네쪽에서는 «등단 십 년 이내 작가», 민음사쪽에서는 «신예들»을 언급하였다.

<sup>4</sup> Attias-Donfut Claudine, *Génération et âges de la vie* [세대들과 인생의 시기들], PUF, Coll. Que sais-je? N.2570, 1991, 59쪽. 세대와 사회의 집단에 관한 전문 용어에 대하여: Attias-Donfut Claudine, Daveau Philippe, Baillauquès Simone 지음 기사 «Génération» [세대] in *Recherche & Formation* [연구와 연수], N°45, 2004. «Transmission intergénérationnelle et formation professionnelle» [세대간 전이와 전문적인 연수], 101-113쪽, 그리고 Mauger Gérard 다양한 연구 참조.

<sup>5</sup> 이광호는 이 변화를 «혼성 글쓰기»로 부르기도 한다. 즉 «역사적인 경험에 대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않으며 다양한 문화적인 글들과 연결된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글쓰기이다. 그런 문제들은 1990년대 후반기에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쓴 소설속에 장르의 관심이나 대중문화에서 온 상상력에서 볼 수 있다. 개인 역사적인 경험에서 독자성을 못 받은 세대에게는 다양한 문화적인 글들과 연결이 문학적인 상상력에 큰 근원이 되었다.» Lee Kwang-ho, «Cultural hybridity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오늘날 한국문학에서 문화적인 혼성] *Korea Journal*, Vol.47 No.1 Spring 2007, 28-49쪽 (31쪽).

국가의 정치 싸움, 국가, 세계, 역사조차 관계를 끊은 채 문학에 대한 순수한 정의에 대한 믿음 ; 정치적 언어적 분배에서 독립하여 배타적이지 않고 전국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문학의 신념<sup>6</sup>. » 젊은 작가들은 소설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자유롭게 씨름하는데 그 작품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유머러스한 비판처럼 볼 수 있다. 예컨대,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서 김애란 작가가 극단적 소비문화를 혹평하는 것이고<sup>7</sup> 장편소설 「미나」에서 김사과 작가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결함과 폭력을 제시하는 것이다<sup>8</sup>. 전쟁이나 독재 정부와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영구히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경쾌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젊은 작가들의 대부분 작품에서는 꾸준한 암흑,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늘은 N 포세대의 문맥을 통해서 최진영 소설 <엘리>를 분석하려고 한다. N 포세대의 N 글자를 여러 가지의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가장 흔한 표현은 삼포세대다. 2011 년에 나타난 표현인데<sup>9</sup> 주로 1980 년 이후 태어나서 연애, 결혼과 출산 포기하는 젊은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다양해졌다. «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 포세대, 그에 더해 내 집과 인관관계를 포기하는 5 포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세대를 7 포세대라고 한다<sup>10</sup>. » 또한, 'N 포세대'에 대한 나무위키 페이지에 따르면 그에 더해 건강과 외모관리를 포기하는 구포세대, 그리고 삶까지 포기하는 십포세대(혹은 완포세대나 전포세대<sup>11</sup>)라고 한다. 이 젊은 세대를 일컫는 호칭을 보면 부정적 함축이 강한 '포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젊은 작가들의 작품(단편 <엘리> 포함)의 우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싶다.

본 발표에서는 고독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독이란 오랫동안 시와 산문의 영감으로 쓰였는데 프랑스 시인 라마르틴의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 하나의 존재,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sup>12</sup>»라는 구절이 가장 유명한 본보기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연구하는 관점으로 보면 고독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믿는다. 이상과 같이 젊은 세대가 포기하는 것들중에 연애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포기한다면 혼자가 되어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최진영 단편 <엘리>속에서 여러 가지의 고독 모습을 분석하고 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맥(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 다양한 인간 관계를 포기하자 결정한 세대)을 통해서 고독의 의미와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독은 한편으로는 부정적 의미,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sup>6</sup> Casanova Pascale,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월드 문학 공화국], Seuil, 2008, 73 쪽.

<sup>7</sup> « 김애란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구체화된 소비사회의 일상 », 김정남, 「현대문학으로 읽는 인문학 키워드 12」, 작가와비평, 2018.02.25.

<sup>8</sup> 젊은 작가들의 작품속 폭력의 편재(遍在)에 대한 백지은 문학평론가 분석 : « '사회적인 것'을 묻는 세 가지 방식 — 구조화된 '폭력(성)'에 맞서 » 「독자 시점」 백지은, 백지은 비평집, 민음의 비평 4, 민음사, 2013.11.08.

<sup>9</sup> « 삼포세대라는 말은 2011 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 신조어 » 김동원, « 3 포세대의 실체 »,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의 창, 2016.02.29, 225-238 쪽.

<sup>10</sup> 김난도 외, « Hit and run 치고 빠지기 » 「트렌드코리아 2016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6 의 전망」, 미래의창, 2015.11.10, 141-152 쪽.

<sup>11</sup> 나무위키 페이지 온라인 보기 : <https://namu.wiki/w/N 포세대> 거기서 소개된 '전포세대'라는 표현은 예컨대 김영수 에세이 <대륙의 거상>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 지금 우리 사회도 분배로 대변되는 정의와 공평이라는 심각한 명제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철저히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사회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경쟁 구도, 이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정치와 관료들,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 전포(전부 포기한) 세대 문제, 생업이 파괴된 경제 구조 등이 이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 » 김영수, <공자, 빈부보다 분배가 중요하다> in 「대륙의 거상」, 매경출판, 2018.05.23, 77 쪽.

<sup>12</sup> Alphonse de Lamartine, « Un seul être vous manque, et tout est dépeuplé ! », « Isolement » [<고독>], in *Méditations Poétiques* [명상 (冥想) 시집], 1820.

의미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엘리>의 주인공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고독 모습들이 공존하기 어렵게 보인다.

## 0. 최진영 소설 <엘리>

<엘리>라는 단편소설은 젊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친척들이 지지하는 사회적 성공의 이상과 동일시하기 분명히 힘들다. 결혼문제로 여자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달성하지 못한 이상적인 사회적 계급문제로 가족과의 충돌 후, 그는 이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 이야기 내내 진짜 인간보다도 인간미가 더 많아 보이는 코끼리와 함께 살게 된다. 열심히 애를 써도 한국에서 찾지 못 하지만 아직도 동경하는 행복을 가져올 만한 꿈과 상상력을 추구하려고 결정할 때도 주인공의 주변에는 엘리뿐이다.

### 1. 한국사회의 기준에서 고립

#### 1.1. 이야기의 현재 :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은 결별

단편소설 내내 익명인 화자가 홀로 된 주인공처럼 보인다. 먼저,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 젊은 한국 성인 집단에서 고립된 상태이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 동질감이 있어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 즉, 통합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거절하여 진짜의 성인이 되기 위한 모든 통과 의례<sup>13</sup>를 거절하고 있다. 우선 가정을 이루는 것을(즉 삼포세대를 소개할 때 다른 상징 3 가지 : 연애, 결혼, 출산) 거부하는 것이다. 「통과 의례」라는 작품속에서 Van Gennep 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의례들을 비교하며 모든 사회에서 그 의례의 비슷한 작용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의례를 겪기 마련이다. «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사회에서 다른 특별한 사회로, 그리고 특별한 사회 정세에서 다른 특별한 사회 정세로 통행하기 마련이다. 그럼으로 개인 생활은 항상 똑같은 유형으로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과 다르지 않다. 다음과 같다 : 출생, 사회적 사춘기, 결혼, 출산, 계층 진행, 활동 전문화, 그리고 사망. 이 모든 과정들이 의식을 행할 때는 똑같은 의미로 각 개인이 규정된 한 상황에서 다른 규정된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sup>14</sup>. » 저자는 인간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엘리> 두번째 부분은 « 이것은 나의 연애 이야기다<sup>15</sup> »라는 제목을 붙여 있다. 화자는 마지막 연애와 그 연애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다. 결별의 이유를 생각해 설명하고 싶을 때 두 명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연애의 논리적 결과로 여기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다는 의미이다.

« 애인은 결혼 생각도 없는 남자와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자기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같은 꿈을 가졌지만 헤어졌다. 왜냐. 나는 내 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애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19-220]

왜냐하면, « 애인은 서른이 되기 전에, 정확히 스물아홉 살엔 결혼을 싶다고 했다 » [218] 고 남자가 설명한다. 그러하여 여자가 삼십이 되기 전에 꼭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한국 풍습을 추종하려 한다. 주인공은 같이 결혼하는 사람보다 결혼의 나이가 애인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슬프게 받아들인다. 여자는 결혼의 인간적 측면보다 단지 체면에 유부녀가 되어 자신의 여성 역할을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더 중시한 것 같다. 그러므로 취업이

<sup>13</sup> 의례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 있는데 상징적으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한 집단이 마련하는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관례라는 뜻이다. 의례의 정확한 정의와 의미의 변화에 대하여 : Catherine Bell *Ritual : Perspectives and Dimensions* [의례 : 시각 및 관점], Oxford University Press, 2009.12.29, 368 쪽.

<sup>14</sup> Van Gennep Arnold, *Les rites de passage : étude systématique des rites* [통과 의례 : 의례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 Paris : Editions A et J Picard, 1981, 4 쪽.

<sup>15</sup> 최진영, <엘리> in 「요요 (제 13 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2)」, 문학의숲, 2012.10.02, 218 쪽. 뒤에 나오는 인용은 항상 2012 판에 참조한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취직'하려 하는 경우도 많다<sup>16</sup>.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건수의 감소세를 지적할 만하다. 2016 년에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30.1 세, 남성 32.8 세 되었다. 그에 비해 2010 년 평균은 28,9 세 (여) 하고 31,8 세(남) 였고 2000 년 평균은 26,5 세(여) 하고 29,3 세(남) 이었다<sup>17</sup>. 특히 여성 중에 심한 변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게다가 혼인건수가 계속 감소하고<sup>18</sup> 나중에 또 다룰 1 인가구의 증대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sup>19</sup>.

이야기 내내 숫자가 자주 나온다. 숫자를 사용하는 것들을 평가할 때 차갑고 다정하지 않은 느낌이 오는데 이것은 « 수치화의 틀에 갇히고 » [221] 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남자가 자신의 키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내 키는 169 센티미터,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보다 오 센티미터 작다. 내 애인 키는 대한민국 여자 평균보다 팔 센티미터 큰 168 센티미터였다. 애인은 나 때문에 하이힐을 못 신는다고 투덜거렸다. » [215]

정확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주하게 된 비교와 계층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나는 평균보다 높은지 확인할 수 있으니 평균이상이라면 성공이라는 의미이다. 애인은 평균보다 팔 센티로 높은 반면에 화자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엘리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 두 사람들이 헤어질 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혼합하기 어렵다는 제안이 있다. 아래에 수저계급론에 대해 말할 때 그 것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단편의 화자는 이 수많은 비교들을 반대하며 선천적인 것들을 바꾸고 싶는데 이루지 못해 인간의 무력함을 발견한다. « 팔투가 맘에 안 든다면 고치면 되고, 몸매가 맘에 안 든다면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들 수 있지만, 키는 선천적인 거다. 나는 운명적으로 169 센티미터다. » [215-216] 단편속 그전 단락에서 동물들이 한 종의 평균 키를 모르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것과 암시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무용은 강조된다.

기준을 받아들여야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고통이 일어나게 할 통합보다 거절과 고립을 선택한다. 그는 생각들을 솔직히 설명하고 있다. 결혼하고 나서 개인의 행복을 줄 수가 없는 사회 규칙을 재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결혼이란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sup>16</sup>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녀는 계속 떨어지면 남자라도 잘 만나서 '취직' (취직 대신 결혼하기)이라도 할 생각이라며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취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같은 여자라서 듣기가 좋지 않아서 그게 뭐냐며 혀를 차고는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 또 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도 있게 됐다. » 윤미선, 「홀로서는 연습」, <기다리는 사람, 찾아나서는 사람>, 유노북스, 2015.10.05, 129-136 쪽. 취직이라는 현상에 관련하여 거부에서 동의로 바꾸는 생각이 서른 살 될 때쯤 생기는 것 같다. (본 인용은 '서른의 연습'이라는 구분에서 나타남.)

<sup>17</sup> 세무 사장이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 보고서에서 참고. 2017.03.23. <혼인.이혼 건수 및 초혼연령>, 5 쪽. 온라인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62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62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sup>18</sup> 통계청 보고서에 따라서 2016 년에 281.635 건이었는데 그에 비해 2010 년에 326.104 건, 2000 년에 332.090 건이었다. 즉 2010 년 이후 2016 년까지 13.6%으로 줄었다. 상계서.

<sup>19</sup> 예컨대 최서윤이 쓴 에세이에서 홀로 삶을 선택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대는 것이다. « 픽업 어찌구 하는 찌질이들이 까부는 것과 테이트 폭력, 성범죄 사례들을 목격해왔다. (다수의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안전이별에 실패하고 혁박과 폭언, 스토킹에 시달리며 눈물의 시간을 보낸 경험도 있다. 덕분에 원만하면 연애 안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그래도 충분히 즐겁다. [...] 결혼?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내 주변에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과정을 생각하면 더 귀찮다 [...] 출산? 성긴 사회 안전망, 무한 경쟁 사회의 면면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못할 짓 같고,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미 인구가 넘치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인구수를 늘리는데 일조해서 지구를 더 힘들게 해야 하나 싶다. [...]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다. » 최서윤, <문화, 죽은 듯 살지 않기 위해 짝 소리 내기> in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 「미운 청년 새끼」, 미래의 창, 2017.04.13, 164-231 쪽.

애인이 사람과 성격보다 집안과 조건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화자는 고독(부정적인 외로운 의미로)을 느낌으로부터 외견상으로 된 결혼을 거절하는 것이다.

« 자, 유의해서 듣자. '스물아홉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지, '스물아홉에 너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 '솔직히 넌 마음에 드는데, 네 집안이나 조건은 마음에 안 들어. 너란 사람은 참 괜찮은데 말이야'. » [218]

물질과 구체(具體)는 정서와 감성보다 우선한다. 연애나 결혼에 관련 인간 측면이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여겨야하지만 여기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자가 불편하게 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도 넘어간다. 결혼한 다음에 올 예정된 것들도 두렵다. « 솔직히 애 양육 문제랑 노후 문제만 아니면 당당히 사랑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그런 것 없는 결혼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 [219] 그리고 조금 후에 걱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하고, 애를 낳으면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해야 할 테니까. 나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두 시까지 돌 돌고, 애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두 시까지 공부해야 할 거다. 그래 봤자 나는 평균 연봉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 테고, 애는..... 반에서 이십 등이나 할까? 나는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해할 테고, 애는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불행해할 것이다.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두 시까지 일하면서도 무능한 가장 소리나 듣고 싶진 않다. 내 자식이 아버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일 거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는 게 대체 뭘까 싶다. » [219]

사실 화자가 슬프고 허무하게 여긴 규칙을 재현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자식까지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한다. 요즘 젊은 세대끼리 널리 공유된 수저계급론<sup>20</sup>이라는 맥락 속에 둘 만한다고 생각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식들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 지위가 높아지려고 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특권층에서 온 '금수저'와 하류층에서 온 '흙수저' 사이 격차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흙수저'라는 표현에서 이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사람들을 '흙자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 흙자식이란?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된다. 이런 청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흙수저에 비유한다. 흙으로 만든 수저를 상상해봤는가. 무엇을 퍼먹으려고 힘이라도 주면 그만 바스라지고 마는 쓸모없는 '도구'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영영 밥을 퍼먹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불가능한 경쟁을 은유한 것이다. 즉 수저계급론은 부모 탓보다는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행위다<sup>21</sup>. »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젊은들이 수저계급 시스템에 수감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정해진 계층에서 다양성도 있다<sup>22</sup>. <엘리>의 주인공은 그도 자식도 '흙수저' 상태를 피하지 못해서 '금수저'의 엘리트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sup>20</sup> 또한 수저계급론에 관련 : 주창윤, 「세대문화」, <09. 수저계급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11.04, 75-82 쪽.

<sup>21</sup> 최서윤, « 정치, 더럽고 치사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 in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 「미운 청년 새끼」, 미래의 창, 2017.04.13, 96-163 쪽.

<sup>22</sup> 최성애와 조벽 교수는 « 30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한다. «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도 특별한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설 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 그렇지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불만스럽고 세상이 불편한 사람들이 » 있다는 것처럼 « 경제적으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최성애, 조벽,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 <프로그래밍: 애착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행복씨앗이다>, 해냄출판사, 2018.01.08, 11~30 쪽.

우리는 살펴본 세 가지 점(연애, 결혼, 출산)은 28 살인 화자가 포함된 삼포세대가 포기하는 세 가지와 다르지 않는다. 2011 년에 단편을 처음 출간되었을 때 최진영 작가는 30 살이 되어서 그런지 작가 진짜의 세대를 단편 화자의 세대와 연결시키면 어떨까 싶다.

## 1.2. 화자의 과거 : 학업, 취업과 재산 포기

화자가 일반적인 단계를 따라서 성인 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기준을 반대하는 남자주인공의 반항 태도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것이다. 화자는 학교를 다녔을 때 처참한 경험을 기억한다.

« 솔직히, 나를 공부하게 했던 힘은 칭찬이다. 칭찬받는 게 좋아서 백 점 맞는 것도 좋았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백 점을 맞아도 부모님은 더 이상 칭찬해 주지 않았다. 대신 걱정을 했다. 시골 학교에서 일등 해 봤자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만 했다. 백 점을 맞아도 칭찬 안 해 주고 구십 점을 맞으면 야단을 쳤다. 성적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 [228]

남자는 부모한테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관심은 점수와 미래의 직업 가능성뿐이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아들이 받고 싶은 애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애정이 부족하여 남자가 무시와 거부를 느끼며 상처를 받았다. 다양한 인정 이론 목록을 만든 과정에서, 특히 Honneth의 작업에 근거를 두고, Caillé는 그렇게 설명한다. « 우리는 모두들 무시, 오해와, 무형을 피하고 싶고 뚜렷이 다른 세 가지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헤겔이 애정이라 부르는 측면에서 — 나는 개인적으로 애정보다 원시 사교성이라 불렀으면 좋겠지만 — 우리는 애정과 애착을 받고 싶고 그것이 자신감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법과 정치의 공공 영역에서 우리는 동등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존중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사회적 협력 측면에서 — 분업을 불렀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 우리는 기여, 일, 능력에 비례하여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존경을 받고 싶다<sup>23</sup>. » 부모는 학교 공부를 보면서 아들에게 인정을 주지 않으면 그의 자신감을 구성하기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아이가 본 가족 속에서도 고립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등급이 폭락하고, 본 학교 반에서도 고립된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학교에서 « 등급과 지위에 따라 분배가 이중의 역할이 있다. 격차를 보여주며 소질, 능숙과, 자질을 계층화하는 동시에 처벌과 보상을 주는 것이다<sup>24</sup>. » 학생이 공부 잘 하면 «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 가능성이 보상이다. 반대로 잘 안 하면 « 비하받게 되는 추락 »이 처벌이다. 교육 시스템은, 특히 감시와 처벌 속에서 자세히 설명된 시험과 점수를 통해서, 교육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 비교하고, 구별하고, 통일하고, 제외하는<sup>25</sup> » 시스템이다. 여기 가장 중요하는 용어가 바로 후자다. 학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요청받은 대로 잘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소외된다는 것이므로 화자가 어릴 때부터 소외되어 외로운 모습이다. 연속적으로 반항하면서 학교에서 먼저 경험한 그 소외를 앞으로 계속 영속시킬 것이고 잃어버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학교라는 기관에 관련 논쟁적인 관계가 세월이 흐르는데도 계속된다. 나중에 화자는 대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 의사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sup>23</sup> Caillé Alain, « Introduction » [서문], in Caillé Alain (dir.) *La quête de reconnaissance, nouveau phénomène social total* [인정 탐구는 최근에 전면적인 사회 현상], La découverte, 2007, 5-14 쪽.

또한 사회학 측면에서 인정에 관련 : *De la reconnaissance : don, identité et estime de soi* [인정에 대하여 : 증여, 독자성과, 자부심], Revue du MAUSS n°23, 2004/1, La découverte, 그리고 Christian Lazzeri & Soraya Nour (dir.), *Reconnaissance, identité et intégration sociale* [인정, 독자성과, 사회통합], PU Paris Nanterre, 2012.

<sup>24</sup> Foucault Michel [미셸 푸코], *Surveiller et punir* [감시와 처벌], Gallimard, 1975, 183 쪽.

<sup>25</sup> 상계서 185 쪽.

« 대학 가기도 싫었다. 가 봤자 돈 낭비인 것 같았다.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가 전문대라도 가라고 했다. 전문대 가서 이 년을 놀더라도, 고졸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초봉부터 차이가 난다고. 그 말이 너무 웃기게 들렸다. 결국 급을 결정하는 건 돈이란 말이였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은 그런 세상이었다. » [229]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소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대학에 가는데 대학의 수료가 있어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비가 높은데도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기록적인 최고치가 나타난다. OECD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35~34 세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젊은이들은 70%가 되는데 다른 OECD 나라의 평균은 43% 나타났다. 최고의 추이인데 그 다음에 캐나다 (61%), 일본 (60%)과 영국 (52%)이 온다. 2010년부터 한국은 일위를 보이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캐나다(54%) 하고 일본(53%) 뒤에 있었다<sup>26</sup>. 이를 보면 2005~2010년 사이에 취업하기 위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기간은 새로운 세대로 통행과 젊은 한국인들이 대학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일치한다. 최애장과 Jeffrey Stark은 한국인 젊은이들 3 세대를 연구하는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 2000년대 중반에 (...) 대학 캠퍼스는 젊은이 특유의 마음으로 번창하고 다양한 문화적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여기기 그치었다. 대신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취업 과열 경쟁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다. (...) 좋은 대학에서 살 만한 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학생들이 인턴 사원, 외국어 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 경쟁력이 있는 대회에서 상을 수여해야 하는 등을 통해서 스펙을 확대시켜야 한다<sup>27</sup>. » 이 수치와 같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면 높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 어려움을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한국인 대학 졸업자 75%가 취업을 했지만 OECD 다른 나라들의 그 평균은 83%였다<sup>28</sup>.

단편소설의 화자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한다. 미래에 돈을 더 벌게 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는 돈에 집착과 경제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과 반대한다. 그렇지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 세상에서 최고로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끈대 형 » [222] 도 그런 말을 반복한다. «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정신 바짝 차려라. 야, 사랑이 밥 먹여 주냐. 밥은 돈이 먹여 준다. [222] 친척들의 제안을 과거에서 못 충족시켜서 그런지 현재의 화자가 분명히 일자리가 없고 돈이 부족한 것 같다. «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빚 갚고 나면 차비만 똑 떨어졌다. 그러기를 삼 년 동안 반복하다 이곳으로 들어왔다. » [224] 다시 말해서 대부분 젊은 흙자식처럼 빚을 갚고 알바를 하면서 살다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도망을 선택하며 집단에서 소외되고,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잠복한다. 그렇게 하면서 친척들의 경제적 이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 엄마아빠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가 될 거라고 믿었다. » [228]

화자를 살펴보면 3 포세대뿐만 아니라 취업과 집 마련 더하는 오포세대까지 포함할 수 있다. 주인공은 취업으로서 알바만 할 수 있었고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의 경쟁에 대한 무관심을 볼 수 있었다. « 엄마, 특히 형에게 나는 실패자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있으니까. » [226] 대부분 한국 젊은이들이 가능한한 좋은

<sup>26</sup> 수치 OECD, Table A1.2. «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of 25-34 years old (2000, 2005, 2010, 2015 and 2016) » [25-34 세 교육적 성과 추세 (2000, 2005, 2010, 2015, 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2017 한눈에 보이는 교육 : OECD 지표], OECD Publishing, Paris, 51 쪽.

<sup>27</sup> Cho Haejoang & Jeffrey Stark « South Korean Youth across three decades » [« 3 세대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젊은이들 »]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한국 문화와 사회 루트ledge 핸드북], Routledge, 2017, 123-124 쪽.

<sup>28</sup> 수치 OECD, Table A5.2. « Trends in employment rates of 25-34 years olds, by educational attainment (2000, 2005, 2010, 2015 and 2016) » [교육적 성과에 따라서 25-34 세 취업률 추세],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2017 한눈에 보이는 교육 : OECD 지표], 앞서 책, 101 쪽.



직업을 구하려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동안<sup>29</sup> 그는 시골에서 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화자는 하고 싶은 것이란 하나뿐이다.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 그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상관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현상(現狀)을 보면 그 주인공이 아파트를 구입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오포세대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본 분석은 인간관계와 꿈/희망을 포기하는 칠포세대까지 현상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속에서 경험한 고독과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아직도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남아 있다. 타인의 행위를 마음에 안 들어서, 타인때문에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겪는다기 보다 그는 자발적으로 시골에 가서 홀로 갈겠다고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겪는 부정적인 고독을 직접 선택한 긍정적인 고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 2. 자발적인 고독 : 장단점

### 2.1. 타인 없이 힐링 고독을 찾아서

한국사회의 과정을 실망하고, 친척들이 원하는 대로 동년배의 집단과 통합되지 못해 화자는 타처로 대피한다. 비판이나 고통스러운 악념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이사 가는 일로부터 화자가 홀로 평화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생활하게 된다. 사르트르는 «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화자가 «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언제나 대화였다. 가족과의 대화. 애인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 [234]라고 설명할 때 그 생각을 공유한다. 그는 자기류로 행위하며 자기 꿈을 따라가고 싶을 때마다 타인한테서 얻는 것이 비판뿐이다.

« 사랑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언제나 허무하다. 꿈에 관한 대화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꿈에 관대하지 못하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그거 되려면 되게 어렵고 힘들다던데, 라는 말부터 늘어놓는다. » [221]

고통의 원인은 타인의 비판과 반응이라니 타인을 피해야 고통을 없애지면 안 될까 화자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고독은 꼭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된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다. 화자는 거부하고 소외당하면서 생긴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침착을 선택한다. 고독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 고독과 고독에 관련 용어를 생각할 때는 Philip Koch 은 외로움(loneliness)과 고독(solitude)사이 차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외로움은 « 인간 관계를 갈망으로 인한 불쾌감<sup>30</sup> »이라면 고독은 « 타인에서 해방한 채 체험하는 상태<sup>31</sup> »라고 한다. 외로운은 부정적인 함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고독의 경우에는 부정적과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통으로부터 힐링의 가능성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고독의 이 두 가지 의미는 정성식 작품에서 차용된 '즐거운 왕따<sup>32</sup>'라는 표현이 이 고독의 두 가지 의미를 아주 잘 구현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화자가 집단에서 왕따이었지만

<sup>29</sup>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세대는 가끔 스펙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월드비전과 동그라미재단이 발표한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스펙에 집착은 꿈을 꾸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 « 우리 미래세대는 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스펙을 '입시'와 '취업'을 위한 스펙을 먼저 쌓아야하는 미래세대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 (한국월드비전, 동그라미재단,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일반편」) e 퍼플, 2018.05.14, 181 쪽.)

또한 스펙에 관련: « 왜 한국은 '스펙 공화국'·'성형 공화국'이 되었는가? 후광 반사 효과 », 강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 인물과사상사, 2014.06.13, 149-155 쪽.

<sup>30</sup> 원본: « the unpleasant feeling of longing for some kind of human interaction », Koch Philip, Solitude: A Philosophical Encounter [고독: 철학적인 만남], « Chap.2 Near relations: loneliness, isolation, privacy, alienation » [2 장. 외로운, 소외, 호젓함과, 이간의 근접], Open Court, 1994, 31 쪽.

<sup>31</sup> 원본: « the state in which experience is disengaged from other people », 상계서, 44 쪽.

<sup>32</sup> 정성식, 「즐거운 왕따, 나홀로 경제학」, 새빛북스, 2014.

자발적으로 집단을 떠나면 즐거움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최진영의 주인공처럼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관태기(관계+권태기)라는 합성어까지 나타났다. 인관 관계가 힘들게 해서 생긴 관태기에는 고독이 필요하다. « 관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화함에 따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 관태기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sup>33</sup>. » 홀로 삶의 즐거움을 배우는 것이 고독력(孤獨力)<sup>34</sup>이라는 표현이 담기는 의미다. « 이제 사람들에게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일본에서는 혼자 잘 지낼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른다. (...) 관태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고독력을 기르는 방법은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독력을 키워 건강한 개인주의로<sup>35</sup>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up>36</sup>. » 여기 고독은 완전히 쾌적하는데 개인에게 힐링 효과가 있어 보인다.

남자주인공이 첫번째로 혼자 도망가는 것은 교육과 미래에 대해 아버지하고 연쟁을 한 후이다. « 아빠랑 다투다가 확돼져 버릴 거라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왔다. 시내를 떨돌다가 무작정 강릉 가는 버스를 탔다. » [229] 아버지/아들 대치, 즉 두 시대의 다른 징후적 생각 대치를 피하려고 그는 집을 떠나서 함부로 방향한다. 그렇게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개인적 무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이 더 쉽게 보이고 친척들이 반박할 수 없는 타처로 혼자 가다보면 남자가 그 홀로 생애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싶다. 가출하면서 얻은 고독이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망을 계속하고 싶다. « 어부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다. 망망대해에서 꿈치나 오징어만 대하며 살고 싶었다. 원망이나 실망이나 기대나 죄책감, 연민 같은 인간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 [229]

방황<sup>37</sup>를 경험하면서 그가 꼭 피하고 싶은 것은 타인과 타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존에 관련된 인간 감정이다. 그렇지만 가출과 방황의 상태에 끝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sup>33</sup> 이준영, 「1 코노미 : 1 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 21 세기북스, 2017, 29 쪽.

<sup>34</sup> 일본 작가 다카나가 노부유키 차용: 다카나가 노부유키, 「고독력」, 이선이 옮김, 이레, 2004.05.08 (원본: 武長脩行 「孤獨力のあるママ子どもを伸ばす」). 고독력이라는 것이 홀로 즐겁게 사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최재식, <고독력을 키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힘> in 「은퇴 후에도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디자인크레파스, 2017.03.27.

<sup>35</sup> 이준영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는 것이 개인주의의 징후 하나다. 그러나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에 관련 연구하는 정성식은 부정적으로 여긴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인존중주의'라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한다: « 가족의 개념이 자나 깨나 함께 해야 한다는 개념이 신세대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닌 개인존중주의다. 혼자만의 구역을 인정하고 넘지 않으려는 것, 솔로 이코노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다. » 정성식, 전제서, 32 쪽.

<sup>36</sup> 이준영, 전제서, 31 쪽.

<sup>37</sup> 여기 방황이라는 표현이 목표가 없는 돌아다니는 의미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방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젊은이의 방황에 대해 연구할 때, Emmanuel Langlois 는 그렇게 말한다. « 저희 사회들은 정주(定住)와 직업 안정(安定)이 기준으로 확립했으므로 함축적으로 부정적인 생활방식을 시사하는 것이다. (...) 방황이라는 것은 공소가 고쳐야 할 이상(異常)처럼 여긴다. » 주로 « 모험, 유동성이나 자유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정의보다 그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법이 우선한다. » Emmanuel Langlois, « De l'inconvénient de n'être le problème de personne : cécité institutionnelle et vulnérabilité sociale des jeunes en errance »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의 약점에 대하여: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취약성과 기관의 맹목], *Pensée Plurielle* n°35 *L'errance : d'un non-lieu à un non-lieu* [방황: 비장소에서 다른 비장소로], De Boeck Supérieur, 2004, 83-99 쪽.

실현되지 않아서 몇일 뒤에 집에 돌아간다. 처음에는 홀로 여행<sup>38</sup>을 통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미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패를 향해 한 걸음뿐이라는 것을 독자가 곧 이해한다. 주인공이 집에 돌아갈 때 기대된 긍정적인 재회를 경험하는 대신에 아들을 구하다가 아버지의 사망한 것을 알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얻는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 엄마는 나도 죽은 줄 알았다고 했다. 살아돌아와서 대행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 [230] 가출을 통해서 경험한 신체적인 고독을 떠나 다른 고독을 찾게 되었다. 가족은 남자를 대환영하지 않고 정을 함께하는 집단처럼 여길 수 없게 된다. 긍정적인 고독을 떠나서 부정적인 고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홀로 도망하는 첫번째 경험은(자발적으로 잠깐 고립시키고 나서 가족으로 돌아갈 때 인정을 하나도 못 받음) 실패했지만 나중에 또 해보려고 한다. 사회를 떠나서 혼자 시골에 사러 가기 때문이다. 떨어진 지방에서 살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타인이 주는 고통도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세상은 만만치 않고, 사랑은 밥 안 주고, 젊을 때 바짝 돈 안 벌고 뜯구름만 잡다 보면 늙어서 고생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침묵해야만 하고, 일등이 되지 못할 거라면 시도조차 금지되는 게 세상의 룰이라면,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 나는 꿈꿀 때가 더 행복한 인간이라니까! »* [223]

산에서 유거하는 선비나 스님들의 예를 따를지도 모르지만 화자는 소외된 장소를 찾는다<sup>39</sup>. 거기는 개인의 꿈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꿈은 이야기 내내 나오는 주제다. 화자가 지지하는 꿈과 상상력은 긍정적인 고독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는 다른 사람하고 꿈을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공유하지 못 한다. 화자가 꿈을 꿀 때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준보다 다르게 행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꿈을 꿀 때 엄격하게 여긴 규칙에서 벗어나고<sup>40</sup>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편소설은 화자가 혼자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모습, 즉 개인 꿈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마친다. 그는 제작하고 싶은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엘리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다.

*« 우린 아프리카로 간다.*

*걸어왔다니까, 날 수도 있다니까, 믿어 보기로 했다. 지금 내가 믿을 건 엘리뿐이다. »*

[236]

소설의 결말에서 이동을 볼 수 있다. 주인공이 코끼리와 함께 (거의 홀로 상태로) 떠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다. 아직 꿈과 상상력속에. 왜냐하면 이야기속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 2.2 지속되는 죄책감과 고통

<sup>38</sup> 최근에 1 인가구끼리 유행된 '혼행'(혼자+여행) 신조어가 즐겁고 행복한 의미가 담기고 있으니 일부로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었다.

<sup>39</sup>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생각이 오늘날 사회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예컨대, 김남도가 소개하는 2018 년 한국 사회 트렌드중에서 케렌시아 키워드가 나타난다: *«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을 의미한다. 인생이라는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안식처로서 케렌시아의 공간이 절실하다. (...) 케렌시아 querencia 는 '바라다'라는 뜻의 동사 'querer'(케레르)에서 나왔다. 피난처, 안식처, 귀소분능이라는 의미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기장의 특정부분을 머릿속에 표시해둔다. (...) 케렌시아는 회복과 모색의 장소다. »* 김남도 외, *« Hide Away in your Querencia 나만의 케렌시아 »* in 「트렌드 코리아 2018 10 주는 특별판」, 미래의창, 2017.10.30., 335-356 쪽.

<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설명한대로 권력을 상징하는 기준이 있어야 자유가 가능해지는데 권력과 자유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힐링 고독속에서 도피하면서도 화자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과 추억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에 혼자 이동<sup>41</sup>하는 것을 즐기는 많은 한국 젊은이들처럼 쾌적한 고독을 경험하며 호신할 줄 알았던 화자는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 혼자 살 때 소통의 어려움이 사실상의 많지 않겠지만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 이탈하는 것이 기적적인 해결법이 아니다. 문제를 피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피하면 사람들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에 적응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장점도 단점도 불가피하다. 사회적 고립에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Anja Machielse의 작업에 따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 사회적 통합 »이 가능하는데 이 통합은 인간의 « 소속감 욕구 »를 충족시키며 « 현실적 »이거나 « 심리적 »인 « 원조 »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측면으로는 인간관계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 부정적인 효과가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sup>42</sup> »고 결론을 낸다. 그런 생각이 홀로서기<sup>43</sup>를 위한 한국판 자기계발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도 받지만 역시 사람으로부터 위안도 받고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삶의 낙(樂) 중에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감옥에 갇힌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sup>44</sup> »

가족에서 고립시키면서 화자가 계속되는 죄책감을 느낀다. « 가족을 생각하면 슬프고 짜증나고 죄책감이 든다. » [226] 아들을 구하다가 교통 사고에서 아버지의 사망감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절에서 백팔배를 하다보면 무릎이 아픈 어머니의 실망감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본인의 실수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는 직접 수립한 비소통과 고립된 상황을 계속한다.

« 엄마는 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한결같기를 원한다. 늘 뭐든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길 바란다. 그래서 요즘 엄마랑 연락을 잘 안 한다. 전화가 와도 자꾸 피하게 된다. 명절에도, 제사 때도 집에 안 갔다. 엄마는 지금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막내아들이 산 아래 버려진 집에서 코끼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sup>41</sup> 여기는 최근에 유행된 혼밥, 혼술, 혼놀, 혼영 등 신조어와 그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다양한 경험을 홀로 해보는 경량도 증가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30 대인데 이전 세대들보다 집단과 개인에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나타난 솔로이코노미에 관련 : 이준영, 「1 코노미 : 1 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 21 세기북스, 2017.09.18, 296 쪽, 또한 정성식, 「즐거운 왕따 나홀로 경제학 : 왜 우리는 솔로 이코노미에 주목해야 하는가」, 새빛북스, 2014.12.24, 240 쪽.

그런 경향은 젊은 세대가 서양식 생활을 더 각깝게 느끼고 유교사상에서 더 떨어진 상태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윤고은 소설 <1 인용식탁>속에서 나타나는 혼밥에 관련 기사(불어) : Angheben Lucie, « Une jeunesse coréenne entre solitude et désir d'indépendance : l'exemple du honbap dans la nouvelle « Table pour une personne » de Yoon Go-eun » [외로움과 독립의 꿈 사이에 둔 한국 젊은들이 : 윤고은 소설 <1 인용식탁>속에서 나타나는 혼밥 현상], Impressions d'Extrême Orient n°8, en ligne : <https://journals.openedition.org/ideo/>, 2018.09 출간.

<sup>42</sup> Machielse Anja, « Theories on social contacts and social isolation » [사회적 관계와 고립에 대한 이론들], in *Social Isolation in Modern Society*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Roelof Hortulanus, Anja Machielse, Ludwien Meeuwesen, Routledge, 2006, 13-35 쪽.

<sup>43</sup> 여기 홀로서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즉 1인가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 Eric Klinenberg 는 싱글턴(singleton) 신조어를 쓰고 있다. « 이 작품 속에서, '싱글턴'이라는 단어가 혼자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 살 수도 있고, 애인, 룸메이트나 자식과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싱글턴'에 포함되지 않는다. » Eric Klinenberg [에릭 클라이넨버그],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The Penguin Press, 2012, 196 쪽 (ebook).

<sup>44</sup> 이일진, 「지금부터, 그대로부터 : 그럼에도 살아내라 살아있어야 기회도 있다」, 좋은땅, 2016.09.30, 91 쪽.

안다면 엄마는 심장을 토하며 울 것이다.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엄마를 생각하면 죽고 싶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모두의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 지긋지긋한 되책감. » [226]

그는 침묵을 시키고, 연락을 안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 소통은 양 방면에(이야기를 걸지 않고, 이야기를 받지 않음) 모든 관계를 동결하는 상태인데 가능한 완벽한 소외를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관계를 거절하는데 고향에 안 가면 직접적인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고 전화를 안 받으면 목소리로 간접적인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을 그리워한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죽었다. 관계가, 대화가 너무 짜증스러웠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사랑한다), 밀도 끝도 없는 죄책감을 느끼며(지긋지긋하다), 외면하고 싶다가도 보고 싶어서(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울었다(소리도 없이). » [234]

괄호를 사용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고통을 인식했지만 감정을 친척들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 희한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까지 꼬끼리를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백계가 다하는 반면에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소설의 어두운 아이러니다. 본 상황을 잘 인식해도, 꾸준히 타인보다 다르게 행위하고 사회의 어려움을 피하려 고독에서 도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야기 내내 진짜 행위는 엘리의 똥을 수집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엘리와 함께 도망가는 것뿐이다. 화자가 타조처럼 나타나는 문제를 피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 포세대가 생각한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가 꽤 어둡게 보인다. <엘리>처럼 대부분 오늘날 문학작품도 마찬가지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이 본 세대의 징후로 여길 수 있다. 유은정이 그것을 개탄한다: « 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 뒤에 숨어버리는가? 거부담야기 전에 먼저 거부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해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 해요.', '취업을 못해서 다른 것 꿈도 못 꾸요'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sup>45</sup> » 젊은 세대는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고립된 생활을 선택한 것은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는 인간관계의 포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설의 화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고립까지 실패다. 첫째는, 이상한 긍정적인 고독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 하고 고통과 회한을 잊어버리지 못 한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고민들이 항상 강한다 본다. 최민석 작가는 인간이 '호모 고미니우스'를 부를까 싶을 정도다<sup>46</sup>. 게다가 진짜 고통을 이루지 못 하는데 꼬끼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경우에는 동물이 인간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요즘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sup>45</sup> 유은정,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21 세기북스, 2016.10.27, 28-29 쪽.

<sup>46</sup> «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즉, 데카르트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였지만, 나는 '고민하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두고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지만, 나는 '고민하는 갈대'라 하고 싶었고, 인간을 '이상적 동물'이라 하지만 나는 '고민하는 동물'이라 구체화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사피엔스 종의 무수한 표현중에 왜 '호모 고미니우스(고민하는 존재)'가 없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 최민석, 「고민과 소설가」, 비채, 2018.06.25, 8 쪽.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sup>47</sup>. 특히 1인가구에게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고독을 줄이고 싶은 것처럼 볼 수 있다<sup>48</sup>. 화자가 부족한 인간관계대신 반려동물과 관계를 나타나는 것일까 싶다.

### 결론

최진영 소설 <엘리>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고독을 볼 수 있었다. 이 고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사회의 기준을 맞추지 못 하면 집단에서 소외된 상태로 고독에 빠지게 된다. 이 첫번째 고독은 주로 부정적인데 특히 계층과 집단이 중요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집단에서 이상적인 지위보다 실패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선택된 고독이 있다. 이 두번째 고독은 긍정적인데 자기만의 시간을 내주고 스스로 힐링 할 수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해위하기 쉬운 서양 사회의 독립을 본 따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둡고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비관적인 분위기는 전 세대뿐만 아니라 본 세대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일컫는 N 포세대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작가들의 문학작품에서 그런 어두운 징후는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젊은 시대에게 취업의 준비만큼 더 중요한 것보다 꿈과 꿈 가치가 약해진 것 같지만 꿈과 상상력은 꽤 어두운 그림에서 맑은 기미가 될까 싶다.

---

<sup>47</sup> 2017년 한국펫사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거의 30% 되는데 (5 쪽), 그 중에 15.2% 1인가구다 (4 쪽). 반려동물에 열망은 2010년 이후 강해지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20 쪽). 게다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69.1% 외로움을 덜 타게 하는 것 (69.1%), 스트레스가 줄이는 것 (58.2%),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어난 것 (44.1%)으로 나타났다 (54 쪽). 한국펫사료협회, « 2017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 57 쪽.

<sup>48</sup> 「1 코노미」 작품속에서 저자 이준영이 반려동물의 화제를 이루는 장 하나 있는데 예컨대 1인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정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여준다. 이준영, 「1 코노미」, « 펫코노미 비즈니스 », 전계서, 214-229 쪽.

## 참고문헌

최진영, « 엘리 » 김종혁 외, 「요요(제 13 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12)」, 문학의 숲, 2012.10.02, 214-236 쪽.

저서

Attias-Donfut Claudine, *Génération et âges de la vie*, Paris : PUF, Coll. Que sais-je ? N.2570, 1991, 126p.

Bell Catherine, *Ritual :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XV-351p.

Caillé Alain (dir.) *La quête de reconnaissance : nouveau phénomène social total*, Paris : La découverte MAUSS, 2007, 303p.

Casanova Pascale,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Paris : Seuil, 2008 (1<sup>ère</sup> édition 1999), 512p.

Foucault Michel,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 Gallimard, 1975, 318p.

Hortulanus Roelof, Anja Machielse Anja & Meeuwesen Ludwien, *Social Isolation in Modern Society*, London : Routledge, 2006, 288p.

Kim You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London : Routledge, 2017, 312p.

Klinenberg Eric,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New York : The Penguin Press, 2012, 273p.

Koch Philip, *Solitude : A Philosophical Encounter*, Chicago : Open Court, 1994, 375p.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Paris : OECD Publishing, 2017, 453p.

Van Gennep Arnold, *Les rites de passage : étude systématique des rites*, Paris : Editions A et J Picard, 1981, II-288[29]p.

김남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6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6 의 전망」, 미래의창, 2015.11.10, 431 쪽.

김남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8 (10 주는 특별판)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8 전망」, 미래의창, 2017.10.30., 460 쪽.

유은정,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21 세기북스, 2016.10.27, 288 쪽.

윤미선, 「홀로서는 연습 : 불안한 미래에 맞서는 힘」, 유노북스, 2015.10.05, 272 쪽.

이일건, 「지금부터, 그대로부터 : 그럼에도 살아내라 살아있어야 기회도 있다」, 좋은땅, 2016.09.30, 228 쪽.

이준영, 「1 코노미 : 1 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 21 세기북스, 2017.09.18, 296 쪽.

정성식, 「즐거운 왕따 나홀로 경제학 : 왜 우리는 솔로 이코노미에 주목해야 하는가」, 새빛북스, 2014.12.24, 240 쪽.

최민석, 「고민과 소설가 : 최민석 에세이 대충 쓴 척했지만 실은 정성껏 한 답」, 비채, 2018.06.25, 268 쪽.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 「미운 청년 새끼 : 망가진 나라의 청년 생존설」, 미래의 창, 2017.04.13, pp.360 쪽.

최성애, 조벽, 「정서적 흡수자와 정서적 금수저 : 최성애 조벽 교수가 전하는 애착 심리학」, 해냄출판사, 2018.01.08, 312 쪽.

한국월드비전, 동그라미재단,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 일반편」, e 퍼플, 2018.05.14, 252 쪽.

한국펫사료협회, 「2017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7, 57 쪽.

기사

Lee Kwang-ho, « Cultural hybridity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in *Korea Journal*, Vol.47 No.1 Spring 2007, pp.28-49.

Langlois Emmanuel, « De l'inconvénient de n'être le problème de personne : cécité institutionnelle et vulnérabilité sociale des jeunes en errance », *Pensée Plurielle n°35 L'errance : d'un non-lieu à un non-lieu*, De Boeck Supérieur, 2004, pp. 83-99.

김정남, « 김애란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구체화된 소비사회의 일상 », in 「현대문학으로 읽는 인문학 키워드 12」, 작가와비평, 2018.02.25, 216 쪽.

백지은, « '사회적인 것'을 묻는 세 가지 방식 — 구조화된 '폭력(성)'에 맞서 », in 「독자 시점 : 백지은 비평집」, 민음의 비평 4, 민음사, 2013.11.08, 201-222 쪽.